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pp.73 10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대학에서의 종교교양교육

- 가톨릭대학교의 현황과 전망 -

박 일 영

(가톨릭대학교)

《요약》

교육, 특히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설립 주체의 인간 이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톨릭대학교의 설립 주체인 가톨릭 교회가 이해하는 인간관은 바로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밝힌 가톨릭 교회 공식 문헌들이 많이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반포한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1965),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에서 펴낸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1977),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1982) 등에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육관을 찾아볼 수 있다. 전세계 가톨릭계 대학들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양교육도 이와 같은 기본 지침에 따라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사례로 선택하여 살펴본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의 종교교양교육과정도 이러한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톨릭 교육이념의 구체적인 실현과정으로서 가톨릭대학교는 종교교양과정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1학년의 ‘인간학’ 과정, 2학년의 ‘그리스도교개론’ 과정 그리고 3-4학년 중에 선택 필수로 이수하게 되는 ‘종교교양’ 과정이다. 이러한 이론에 치중된 필수 과목 외에 선택 과목으로서 실천적인 ‘사회봉사’ 과정들이 보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가톨릭대학교의 종교교양교육 노선을 일별해 볼 때에, 한국과 같은 다종교 사회 속에서 대학의 종교교양교육이 나아갈 길은 다음과 같다고 여겨진다. 우선, 개개인의 올바른 인성의 실현을 통하여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말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종교교양교육’은 특정 종교의 배타적 진리보유권을 주장하는 편협한 교리교육을 탈피하여, 종교간 대화를 통한 종교간 평화의 실현이야말로 세계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핵심주제어: 하느님의 모상, 다종교 사회,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양교육, 인간 존중.

《Abstract》

**General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ark, Il-young

The education, especially the general education at a university, is very closed to the understanding about the human being of the institution's founder. According to the catholic church, the human being is the image of God(imago Dei). That is the founder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refore human being is insisted to be dignified. The base of the human dignity is clarified in various official documents of the catholic church. We can find out such official view of the church from the following documents: "Declaration on Christian Education"(Gravissimum Educationis, 1965) of the Vatican Council II, "Guidelines of the Catholic Schools"(1977), "Lay Catholics in Schools: Witnesses to Faith"(1982) and "*Presenza della Chiesa nell'Universita e nella Cultura Universitaria*"(1994) of the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General religious education at catholic universities world-wide is being realized at this guiding principles.

The curriculum of the General Religious Education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Songsim* Campus), which is chosen as case-study of this article, is also based on the same guidelines. As a concrete realizing process of the catholic educational idea the General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s composed as following: 'Anthropology' for freshmen, 'Introduction to the Christianity' for the sophomore and 'Religion in General' for the junior and for the senior classes. In addition to such theoretical courses there are practically oriented 'Social Service' programs. These programs are optional subjects.

At a glance on the General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academic way of general religious education in multi-religious society like Korea is considered as follows: firstly, constructing a humanitarian society through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 humanity, and secondly, in this sense 'General Religious Education' is not an

indoctrination of a certain religious institution, but the realization of inter-religious peace through inter-religious dialogue. This is the just shortcut of the world peace.

I. 서론: 인간 존중의 실현과정인 가톨릭의 교양교육

가톨릭의 기본적인 인간 이해 혹은 인간관은 “인간은 바로 하느님의 모상”(imago Dei, image of God)이라는 것이다.¹⁾ 여기에서 가톨릭이 주장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만민의 인권 혹은 인간 존중의 정신이 도출된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인간다운 인간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가톨릭의 교육은 - 종교교육은 물론이고 모든 교육의 기본 윤곽이 - 당연히 하느님을 닮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직결된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특히 가톨릭계 대학에서 인간존중의 정신을 교육하는 일은 교양교육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톨릭계 대학들은 학부 과정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인간의 이해 내지는 인간 존중과 관련된 교양 교육을 이수하도록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 그러므로 가톨릭계 대학에서 “교양교육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동일하다.²⁾

물질적 성공과 경제적 개발만을 유일한 가치로 삼는 세태 속에서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은,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컴퓨터학원이나 영어학원, 심지어는 취업준비를 위한 매너학원으로 변모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에 당장 돈벌이가 안 되는 학문들은 빈사상태의 무기력에 빠져 있다. 특히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학문이라고 하는 인문학이 그렇다. 인문학을 위주로 하는 교양과목은 단지 손쉽게 좋은 학점을 취득하는 전략과목으로 전략하고 만다. 제대로 된 인문학의 수련을 받지 못하다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나도, 정신상태가 유치한 덩치만 큰 아이들을 양산해내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배출된 대학졸업 이상 학력의 소위 ‘전문가’는 날로 늘어나지만, 얼빠지고 약삭빠른 인간들[얼간-이, Fach-idiot]로 세상은 채워지고 있다.

가톨릭이 뿌리를 내린 서양 전통에서는 교양의 원천을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

1 구약성서 『창세기』 1장 26절: “우리들의 모습을 본따 사람을 만들어내자.”

2 제2차 바티칸공의회,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재판: 1983(1969)), 585-603쪽 참조.

(humanist)들이 추구한 인문학(人文學 *studia humanitatis*)에서 찾는다.³⁾ 교양교육이란 그렇다면 ‘인문학을 통한 인간성(人間性 *humanity*)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휴머니즘(humanism) 교육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성, 인성(人性) 또는 인간 본성(本性)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인성 교육’의 실현 내용이나 목표도 달라질 것이다. 휴머니즘을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동일시한 계몽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교의 휴머니즘은 ‘인간은 자신을 초월한 가치 내지 목적을 향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인식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⁴⁾ 이렇게 인간 본성이 실현해야 할 목표를 향한 방향설정(orientation)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인성 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은 제 갈 길을 찾을 것이다. 가톨릭계 대학들의 경우라면, 교양교육의 재건은 바로 인간성을 실현하는 인간 자유의 근거를 묻는 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서양 중세의 가톨릭 수도원을 배경으로 태동한 대학에서는 이러한 인성의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이 바로 ‘자유 학예’ 혹은 ‘자유 학과’(artes liberales)였다.

물론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 자유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한 인간이 자신의 인간성 실현을 위하여 평생 동안 매달려야 할 화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본래 평생교육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양과정을 통하여 교양교육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의 교양과정은 그렇다면 평생에 걸쳐 익혀야 할 교양을 향한 동경(憧憬) 내지 예감(觀感)을 얻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교육은 전문교육을 위한 준비단계의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질서 잡는 일이다. 교양교육은 그러니까 인간 전체의 질서 잡힘, 말을 바꾸면, ‘인간본성의 완전한 실현’에 그 목표가 있다.⁵⁾

가톨릭 교회 내지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 본성을 완전히 실현한 본보기는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인간의 길이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닮음(*imitatio Christi*)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즘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정신을 따르는 가톨릭계 대학들에게 있어서, 인문학 내지 교양교육의 이념인 학문 연구를 통한 인간 본성의 실현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범으로 삼아 그를 닮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길과 합류하게 된다.⁶⁾ 이하에서는 가톨

3 김산춘, 「교양의 원천」, 《들숨날숨》 19 (성베네딕도회 수도원, 2000/11), 58a-61b쪽 참조.

4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1977),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편, 『한국의 가톨릭 학교교육』, (가톨릭문화원, 1999), 209-231쪽 참조.

5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학교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1982), 위의 책, 233-267쪽.

6 토마스 H. 그룸, 이기문 역, 『기독교적 종교교육』 (Th. Groom, *Christian Religious Educat*

릭계 대학에서 시행 중인 종교교양교육의 현황과 전망을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살피기로 한다.

II. 현황: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의 “인간학”〔인성〕교육⁷⁾

가톨릭대학교는 1995년 기존의 가톨릭대학(신학·의학)과 성심여자대학(인문·사회·자연과학 등)이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이렇게 통합된 가톨릭대학교는 인간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며, 그 교육 이념을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진리·사랑·봉사’로 정하였다.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방안으로는, 특히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인성교육의 장(場)이 마련되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왕에 실시되던 교양과정 중의 종교과목들 이외에 ‘인간학’ 과목이 성신교정(신학대학), 성의교정(의과대학과 간호대학) 그리고 성심교정(인문·사회·자연 과학계열 등)에 공통적으로 필수 교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세 교정 중에서 특히 성심교정에는 이러한 종교교양교육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인간학교육원’(이하: 인교원)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인교원은 ‘인간학’ 교육과정, ‘종교’ 교육과정 그리고 ‘사회봉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인교원은 인간 존엄성을 고취시키는 인간학 및 그와 관련한 종교 과목 및 사회봉사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탐구에 중점을 둔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가톨릭대학교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인간존중의 대학교”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적이며 현실적인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교원의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교원을 구성하는 위원으로는 전임위원, 겸임위원, 위촉위원이 있다. 전임위원은 총장에 의하여 가톨릭대 인교원 소속 교원으로

- ion, New York: Harper & Row, 1980), (한국장로교출판사, 제 4쇄: 1993(1983)), 132-162쪽 참조.

7 이하에 제시하는 10개의 표를 포함하는 자료들은 인터넷의 가톨릭대학교 대학교 인간학교육원 홈페이지(<http://songsim.cuk.ac.kr/~canted>)에 공개된 자료들과 그 동안 필자가 인간학교육원과 인간학연구소의 임원으로 가톨릭대학교의 종교교양교육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1997-현재)하면서 입수하고 정리한 자료들이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본문에 제시한 각각의 도표에는 출전 근거를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필자가 (구)성심여대 종교과정 강사로 출강할 당시(1988-1992) ‘종교교육연구소’의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한 경험도 또한 이 글의 작성에 도움이 되었다.

발령을 받은 교수들이다. 2000년 11월 현재 전임 교원은 5명이다. 겸임위원은 가톨릭대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전담위원 이외에 인교원 원장의 제청으로 교학부총장이 지명하여 인교원이 개설한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다. 주로 철학과와 종교학에 소속된 10여 명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촉위원은 인교원 과정의 강의를 위해 인간학교육원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외래 강사들로, 주로 경인 지역 천주교회 기관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성직자와 수도자들이다. 그 숫자는 매 학기 평균 20여 명 선이다. 다음으로, 인교원의 책임 운영을 담당하는 임원으로는 인간학교육원장 외에 총무, 인간학 주임교수, 종교 및 사회봉사 주임교수를 각 1명씩 두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세 분야로 구성된 인교원의 교양교육 과정을 각 과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간학' 교육과정

인간학 교육과정은 '인간학1'과 '인간학2'로 나누어지며, 각각 주당 2시간 수업에 2학점씩 배정되어 있다. '인간학1'은 1학년 1학기에 강의되며, '인간본질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인간의 기원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초월적 측면에 이르기까지를 다룬다. 개체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삶의 의미와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확립하도록 한다. '인간학2'는 1학년 2학기에 강의되며, '관계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맺게 되는 가정, 자연, 사회, 국가, 세계 등과의 건전하고 성실한 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고찰한다. 인교원에서는 『인간학-대학생을 위한 교양교재』(1997)를 발간하여 현재까지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책은 일본 도쿄(東京)의 가톨릭계 대학교인 '상지(上智)대학'에서 발간한 『신인간학』(新人間學, 1995)을 주로 번역하여 기본 골격으로 삼고, 그 외에 일부를 보충 집필하여 만들어졌다.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인간의 외적 조건'에서는 인간의 기원과 인체의 신비를 다룬다. 제2부 '인간의 내면세계'에서는 인간 의식의 발달, 인간의 내면의식, 자유와 성숙 그리고 윤리를 다룬다. 제3부 '인간과 공동체'는 인간과 자연환경, 대화, 성숙과 에로스, 인간과 가정, 개인과 국가, 그리고 정의와 평화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 제4부는 '인간의 초월적 측면'을 다룬다. 삶과 죽음, 종교와 종교심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표들은 최근 몇 년간 '인간학 교육과정'을 실제로 운영한 내용을

보여준다.

<표 1> 1998 - 2000학년도 ‘인간학’ 과목 개설 현황

년도	학기	분반 현황	총 분반수	총 인원	평균 학생수
1998	1학기	주간 20 야간 10	30	1,674	56
	2학기	주간 22 야간 10	32	1,483	46
1999	1학기	주간 30 야간 6	36	1,659	46
	2학기	주간 30 야간 6	36	1,604	45
2000	1학기	주간 34 야간 4	38	1,623	43
	2학기	주간 34 야간 4	38	1,485	40

<표 1>과 아래의 <표 2>에서 보듯이, 1,500 1,600명의 학생들을 매 학기 30~40개 반으로 분반하여 교육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많은 수의 우수한 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인교원 소속 전임교원과 타 학부 내지 전공에 소속된 겸임위원으로는 교원 확보에 태부족이라, 주로 인근 천주교회 기관에 근무하는 젊은 성직자 및 수도자들을 강사로 동원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교원 수에서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교육의 수준과 강좌의 지속성을 고르게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일본 책의 번역이 아닌 한국의 고유한 실정에 맞고, 시의 적절한 교재의 지속적인 개발과 교육보조자료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안고 있다.

<표 2> 2000학년도 ‘인간학’ 세부 사항

1학기

2학기

구분	학부	정원	분반수	평균인원	구분	학부	정원	분반수	평균인원
주간	인문학부	124	3	41	주간	인문학부	120	3	40
주간	외국어문학부	132	3	44	주간	외국어문학부	120	3	40
주간	음악과, 복학/재수강	59	2	30	주간	음악과, 복학/재수강	50	2	25
주간	사회과학부	175	4	44	주간	사회과학부	160	4	40
주간	경영학부	130	3	43	주간	경영학부	130	3	43
주간	국제학부	88	2	44	주간	국제학부	80	2	40
주간	국제학부, 종교학과	43 (23+20)	1	43	주간	국제학부, 종교학과	40 (20+20)	1	40
주간	법경학부	122	3	41	주간	법경학부	120	3	40
주간	자연과학	137	3	46	주간	자연과학	120	3	40
주간	생명과학	93	2	47	주간	생명과학	80	2	40
주간	컴·전자, 복학/재수강	153	4	38	주간	컴·전자, 복학/재수강	135	4	34
주간	생활과학부	190	4	48	주간	생활과학부	170	4	43
야간	외국어학부	90	2	45	야간	외국어학부	80	2	40
야간	인간복지학부	87	2	44	야간	인간복지학부	80	2	40

이렇게 매 학기 40여 개 분반으로 이루어지는 강좌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일관성 결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아래 <표 3>과 같은 특강의 형식을 통하여 부족한 면들을 보충하려 시도하고 있다.

<표 3> 1997 - 1999학년도 '인간학' 특강 현황

학년도	학기	제 목	일 자	강 사
'97학년도	1학기	인체의 신비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6회)	맹광호 교수 (성의교정, 예방의학)
		인간과 역사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5회)	박광용, 이순근 교수 (성심교정, 한국사)
	2학기	인간과 문학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3회)	최인호 선생 (작가)
'98학년도	1학기			미 개설
	2학기	통일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3회)	김영진, 김찬옥 부부 (귀순자)
		인간과 문학	10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4회)	이해인 수녀, 최인호 선생 (작가)
'99학년도	1학기	삶이란	5월 20일	김수환 추기경 (종교인)
	2학기	너와 나 그리고 그대와 함께 하는 우리의 길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3회)	조영호 선생(여행가) 고은태 선생(국제엠네스티) 최인호 선생(작가)
		사랑·성·폭력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10회)	이상화 강사 (성심교정, 여성학)

수십 개의 분반과 다양한 수준의 교원,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실시되는 특강은 일회성이라는 자체 성격과 더불어, 특강 강사의 다양한 수준과 배경으로 말미암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서 특강의 주제들이 정규 교과내용과 뚜렷한 차별성 없이 너무 이론적인 내용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는, 인간학 교육이 단순히 인간에 대한 이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의 예절 교육과 같은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 '종교' 교육과정

‘종교’ 교육과정은 2학년 중에 한 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그리스도교 개론’ 과목과 3-4학년 중에 학생 각자가 그 중 한 가지를 골라 이수해야 하는 10개의 ‘종교교양’ 과목 등, 총 11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목들은 주당 2시간 수업에 1학점으로 인정된다.

1) ‘그리스도교 개론’

‘그리스도교 개론’은 그리스도교를 소개하는 입문 과목이다. 한 편으로, 그리스도교 사상과 신앙의 핵심이 되는, 역사적 인물이면서 신앙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스도교의 신관, 인간관, 세계관, 교회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강의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신앙인의 생활과 실천 등을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룬다.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지성인들에게 그리스도교와 그 문화를 이해시키고,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인생의 의미와 관련하여 고찰하는 과목이다.

(1) ‘그리스도교 개론’ 강의

강의 목표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강의 및 현장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건전한 교양인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젊은 지성인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도록 한다. 그러한 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의, 비디오 수업, 그룹 토의 그리고 현장 체험을 병행한다.

현재 강의용 교과서로는 (구)성심여대 종교교육연구소에서 펴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 (성심여대 출판부, 1994)을 사용하고 있다. 당시 총장 김재순 수녀는 간행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탕을 둔 참다운 인간 교육이야말로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며, 인간의 참 가치인 자유와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확신 아래, 전교생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⁸⁾

본서의 구성은 3부로 나뉘어 진다. 제 1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이란 표제 하

8 성심여대 종교교육연구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 (성심여대 출판부, 1994), 2쪽.

에 총론에 해당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의 질문, 구원의 역사와 예수 시대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예수에게서 복음서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있다. 제 2부는 “예수의 역사적 모습”을 다룬다.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세례, 예수가 받은 유혹, 그의 가르침, 기적, 예수의 제자들, 예수와 여인들, 예수의 마음,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다룬다. 제 3부는 “믿음으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하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궁구하고 있다. 예수의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칭호가 갖는 의미, 그리스도교회의 형성과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형성되는 경위, 그 신학적 이해와 의미 등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 책을 교재로 삼아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그리스도교개론 강의의 순서와 내용, 그리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비디오 자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그리스도교개론’ 강의 내용 및 시청각 자료

주	강의 내용	시청각 자료
1	현대인, 한국인의 종교심과 그 의미	
2	구원의 역사와 나의 인생 곡선	죽음 준비하기
3	나는 누구를 믿는가? - 현장 체험	꽃동네: 자원 봉사자의 삶
4	그리스도교의 복음	십계, 엑소더스
5	예수의 역사적 모습	

6	예수의 유혹과 현대인의 유혹	로메로, 나무를 심은 사람
7	하느님 나라의 비유	
8	참된 행복	오토다케의 즐거운 인생, 인생은 아름다워
9	예수의 행적	나자렛 마리아, 예수(만화 영화)
10	예수가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그때 있었던 일, 세례자 요한, 율법과 사랑
11	현장 체험 나눔	
12	기도하는 삶	
13	예수의 죽음과 부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14	죽음보다 강한 희망	마더 테레사의 사랑
15	교회의 모습	미션
16	기말고사	

이상에서 기존 교과서의 내용과 실제 행해지고 있는 강의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현재 새로운 교과서의 집필이 구상 중에 있으나, 담당 교원 부족에 따르는 과중한 강의 부담과 현장 지도 등의 다양한 책무로 인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 현장체험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이론적인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되고 그리스도의 본래 정신이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시도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현장체험교육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톨릭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교과운영의 한 방안이며, 경기도 가평 혹은 충청북도 음성 지역의 ‘꽃동네’와 경기도 여주 ‘라파엘의 집’에서 토, 일요일에 걸쳐 1박2일 동안 봉사활동을 한다. ‘그리스도교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현장체험교육은 필수로 되어있다. ‘현장체험’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① 전체 수강생에 대한 안내 사항

- ㄱ. 대상: 그리스도교 개론 수강 학생 전원(재수강자 포함)이 참가한다.
- ㄴ. 일정: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주말을 이용하여 계속되며, 그 때 그 때 확정 후 전달한다.
- ㄷ. 과제: 현장 체험에 대한 소감 보고서(A4 용지 2매 정도)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 ㄹ. 평가: 현장 체험 참가 여부와 보고서 제출에 대한 평가는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한다. 단, 담당 교수와 상의가 없거나 타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안 다녀온 학생은 여타 점수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교 개론 과목을 C⁺ 이하로 평가한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 재량).

② 타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예외 사항

- ㄱ. 야간 대학에 재학하는 직장인으로서 해당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생은 시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나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10시간 이상 한 뒤, 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증’, ‘재직증명서’와 ‘주말 근무 확인증’을 받아서 인교원에 제출한다.
- ㄴ. 그 밖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수 재량으로 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인교원 현장체험 담당조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③ 기타 사항

- ㄱ. 경조사나 질병 등으로 참석치 못한 학생은 다른 반과 함께 다녀오도록 유도한다.
- ㄴ. 학생 각자의 현장체험 참가 여부는 학기말 시험 전까지 인교원에서 점검하여 담당 교수에게 전달한다.

다음의 도표는 2000학년도 2학기,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8개 분반, 연인원 735명이 참가하여 실시된 현장체험의 현황을 보여준다(마지막 ‘기타’반의 참가 인원은 미확인).

<표 5> 2000학년도 2학기 '그리스도교 개론' 현장체험 현황

차수	일 자	분반	평균 인원	장 소
1차	9/23-9/24	01	41	가평 꽃동네
		06	50	가평 꽃동네
		07	48	라파엘의 집
2차	9/30-10/01	02	41	가평 꽃동네
		04	62	가평 꽃동네
		08	48	라파엘의 집
3차	10/7-10/8	09	48	가평 꽃동네
		14	50	가평 꽃동네
		52	43	라파엘의 집
4차	10/14-10/15	53	43	가평 꽃동네
		12	61	가평 꽃동네
		10	42	라파엘의 집
5차	10/28-10/29	13	61	가평 꽃동네
		03	41	가평 꽃동네
		51	40	라파엘의 집
6차	11/04-11/05	05	62	가평 꽃동네
		11	42	가평 꽃동네
		기타		라파엘의 집

현재 '그리스도교 개론' 과목에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종교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나 차별 없이 입학이 허가되고 있지만, 일반 평균 보다 높은 비율의 그리스도교 신자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그 중에는 상당한 숫자의 가톨릭 수도자들도 재학하고 있다. 이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하여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나 실천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차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강생의 다양한 수준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구별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로, 성심여대 시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론’이,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교 개론’이 강의되었었다.

다음으로, 현장 체험을 위한 주말의 프로그램에는 원칙적으로 담당교수가 현지 지도를 위하여 동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개론’ 강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인근 천주교회 젊은 보좌신부들이 소속 본당 사목 활동 때문에 소중한 체험 교육의 현장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서 이론적 강의와 현장체험간 불연속성이 발생하게 된다. 자연히 이들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전임교원들의 부담은 더욱 과중해진다.

2) ‘종교교양’ 과목

3-4학년 중에 한 학기를 학생 각자가 선택하여 10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종교교양’ 과목들을 좀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윤리학’은 사람다운 삶의 의의와 목적 추구에 있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즉 자연법과 인정법, 양심과 상황, 자유와 책임, 정의 및 분배, 선행과 죄악, 인간생명의 제 문제를 그리스도교 윤리관에 비추어 개관함으로써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한다. ‘기도와 삶’은 인격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개인 또는 공동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한다. ‘여성과 종교’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여성 지도력을 배양해 가는데 있어서 종교가 여성의 자아인식을 개발하고 소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특히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현대사회와 교회’는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 문제들을 살피고, 그리스도교의 복음선포적 선교사명과 실천과제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과 현대의 다양한 신학사조와 함께 고찰함으로써 사회 곧 세상 안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교회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한다.

‘성서의 인간’은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학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등장인물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길을 모색해 본다. ‘성서의 세계’는 인류의 정신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성서의 세계를 지리적,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형성과 그 특징 등을 살펴본다.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는 우주와 지구에 대한 새로운 창조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역할과 의미를 탐구한다. 또한 환경파괴와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시대의 제 문제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생태신학적 입장에서 조명한다. ‘그리스도교 교리이해’는 그리스도교회가 2000여 년 동안 인간의 구원을 위해 제시한 신앙의 유산들을 현대의 다양한 사회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성서, 교리, 교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리하여 현대의 상황 속에서 종교를 찾는 인간과 하느님을 찾는 인간의 모습과 의미를 모색해 본다.

‘가톨릭 사상과 인간의 제문제’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물질문명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치관의 혼란과 정신적 빈곤을 체험하는 현대인들에게 인간과 세상의 근본 질문들에 대하여 복음의 내용에 비추어 그 답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인간관, 고통의 문제, 윤리관,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그 외 그리스도교의 중요 개념들을 살펴본다. ‘일상의 신화’는 단순히 지나치기 쉬운 일상적인 사물이나 사람, 사건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삶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이 강좌에서는 시, 소설 등의 문학작품과 영성 서적 그리고 음악, 미술, 영화 등을 재해석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뜨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의 두 가지 도표에서 모두 명백히 확인할 수 있듯이, 주·야간을 막론하고 단위강좌 당 적정 수를 훨씬 초과하는 수강생들로 인하여 소수로 한정된 담당 교수의 과중한 부담은 물론이고, 학생들로서도 기대하는 교육효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종교교양’ 과목의 담당 교수들 - 학생들의 영성 계발을 이유로 - 가톨릭 성직자나 수도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과 개발을 제한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우수한 교원의 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 강좌 당 적정한 수강생 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결과 담당 교수들의 엄청난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절실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고 지적된다.

<표 6> 1998 - 2000학년도 '종교 교양' 개설 현황

년도	학기	분반 현황	분반 수	총인원	평균 학생 수
1998	1학기	주간 5	5	총 610	122
	2학기	주간 4 야간 3	7	(주간 360) (야간 104) 총 464	(주간 90) (야간 35)
1999	1학기	주간 4 야간 2	6	(주간 464) (야간 129) 총 593	(주간 116) (야간 65)
	2학기	주간 7 야간 2	9	(주간 457) (야간 67) 총 524	(주간 65) (야간 33)
2000	1학기	주간 6 야간 2	8	(주간 615) (야간 242) 총 857	(주간 103) (야간 81)
	2학기	주간 6 야간 2	8	(주간 524) (야간 131) 총 655	(주간 88) (야간 66)

<표 7> 2000학년도 '종교 교양' 세부사항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 명	수강생 수	비고	구분	과목 명	수강생 수	비고
주간	종교윤리학	89		주간	성서의 인간	54	
주간	기도와 삶	58		주간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	47+97	2개 반
주간	현대사회와 교회	118		주간	그리스도교 교리 이해	96	
주간	성서의 세계	85		주간	가톨릭 사상과 인간의 제문제	109	
주간	가톨릭 사상과 인간의 제문제	112		주간	일상의 신화	121	

주간	일상의 신화	153		주간	여성과 종교		미개설
야간	성서의 세계	105		야간	성서의 인간	65	
야간	가톨릭 사상과 인간의 제문제	98		야간	그리스도교 교리 이해	66	
야간	종교윤리학	39					

3. '사회봉사' 교육과정

‘사회봉사’ 교육과정은 앞서 살펴 본 과목들과는 달리,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모두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 - 4학년 학생들이 수강 가능하며, 총 33시간의 봉사를 하고 나면 1학점으로 인정된다. 이 과목들은 모두 현장 봉사활동과 연계가 되어 있다.

‘아동복지’는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고아원, 어린이 공부방 등의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봉사활동이며, 대상에는 환경 불우아, 정신 지체아, 신체 장애아, 정서 장애아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재인식시키며,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봉사활동은 현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정신교육 및 기술교육, 생활교육, 사회적응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각 재활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성복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행, 가정폭력, 매매춘, 빈민 지역 부녀자, 가출 부녀자 및 미혼모 등의 소외 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며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과 인력 개발에 참여한다. 봉사활동은 여성 관련 가톨릭계 사회복지 시설, 상담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환자 간병, 취업 알선과 교육 보조, 세미나 개최 및 참여, 공공시위 참여 등이 주된 활동이다. ‘노인복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노인을 숭상하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들이 여러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돌보는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이

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능과 관심을 키운다.

‘병원복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간병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환자들의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목 봉사 및 병상 생활에 지친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이 병원이다. 가톨릭대학교 부설 병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학생들에게 본인들의 재능에 따라 병원에서 다양하게 환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생태계 보존의 문제이다. ‘환경운동’ 등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부각시키며,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특히 환경감시활동과 홍보 활동, 하천 및 수림지역 탐사 등의 환경분야에 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환경운동과 관련하여 봉사와 연구가 병행된다.

다음은 현재 인교원에서 개설한 사회봉사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파견하는 6개 분야 사회 복지 관련 기관의 목록이다. 표에서 보듯이 다양한 복지 기관들에서 상당한 숫자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봉사의 경험을 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 사회봉사 기관명

교과 목명	기관명	기 관 설 명	주 소	인 원	봉사내용	활동시간
아 동 복 지	한국이웃 사랑회	고아, 학대 아동, 장애아,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기관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1 대농빌딩 8층	5	우편물 발송 저금통 수거	월-금 14:00- 17:00
	꾸러기동 산	열악한 공단 주변의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영아에서 취학 전 아동들을 보육하는 지역 탁아사업	서울구로3동 791- 25	10	교사 보조 교구 제작	월-토 10:00- 16:00
	새날어린이 집	결손 및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실비로 보호, 학습지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71- 11	5	초등학교 1-4학년 학습지도	월-금 14:00- 18:00
	해성보육 원	5세 미만의 아동 보호 양육사업, 입양사업	인천시 남구 용현4동 159	5	아이 돌보기 청소, 빨래	월-토 09:00- 17:00
장 애 인 복 지	사랑손	15세 이상의 정신지체 무의탁 여성들의 공동생활가정	서울시 동작구 사당5동 181- 360	5	개별 학습보조 보호 작업보조	월-토 09:30- 12:30
	부천 점자도서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도서 및 녹음 도서 보급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454- 1	10	도서 녹음 점자도서워드	화-토 9:00- 18:00
	부천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장애인의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재활과정의 주간 보호센터	부천시 오정구 작동 57번지	5	정신지체장애 인 교육 보조	화-금 13:00- 16:00
	아람동산	장애 어린이 상담, 치료, 교육		5		월-금 09:00- 17:00
여 성 복 지	주한미군범 죄근절운동 본부	주한 미군의 각종 범죄 피해를 조사 연구하여 근절대책을 마련하며, 특히 가장 큰 희생자인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보호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 46 한국기독교연합 회관 511호	2	사무 보조, 우편물 발송, 캠페인	월-목 10:00- 17:00 금(집회) 11:00- 14:00
	서울 여성의 전화	여성인권 운동단체로서 가정폭력 상담, 여성인권활동, 출판홍보활동, 전문상담교육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5	사무 보조, 자료 정리,	월-금 09:30- 17:30
	한국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 예방활동 , 출판홍보활동	강남구 도곡동 951 - 12 가람빌딩 5층	3	사무 보조, 자료 정리	월-금 09:30- 17:30
	평화의 샘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에게 신앙적,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상담 및 성폭력예방교육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187- 1 (상도동으로 이사예정)	5	상담일지정리, 사무보조	월-금 10:00- 17:00
	춘의사회복 지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복지관으로서 우리글 교실, 샘 교실을 운영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에게 교육 실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	5	한글교실, 샘 교실 교사	월-토 09:00- 10:30 10:40- 12:10 14:00- 17:00

노인복지	이냐시오의 집	국가의 지원 없이 전액 후원금에 의한 무의탁 노인 20여명의 공동생활체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591	5	식사 보조, 말벗, 청소	월-금 10:00- 13:00
	남부노인복지관	노인 종합복지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 보라매공원	10	청소, 말벗, 식사보조	월-금 10:00- 16:00
	춘의사회복지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복지관으로서 재가 영세 노인들에게 부식을 전달하고, 전화 말벗 봉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	5	부식 배달, 전화 말벗	월-금 09:00- 18:00
병원복지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병원 내 원목실 운영, 복지사업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5	휠체어 지원, chart운반 등	월-금 09:00- 18:00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병원 내 원목실 운영, 복지사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5	휠체어 지원, chart 운반	월-금 09:00- 18:00
	라파엘클리닉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진료센터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강당4층	5	진료장소청소, 안내,업무보조	격주일요일 11:00- 18:00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병원 내 복지사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5	업무 보조, 음악회-음대생	월-금 09:00- 16:00
환경복지	환경운동연합	전국 주요 하천, 대기, 갯벌 및 해양의 오염도 등 조사. 환경교육. 환경 캠페인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10	자료정리,사무보조,생태기행	월-금 09:00- 18:00
	가톨릭환경연대	환경 미사, 공개 환경 강좌, 토론회, 환경영화 상영, 지역생태 탐사, 환경기행(월1회), 출판홍보사업	인천시 중구 유동 보배학원 3층	10	사무보조,일회용품실태조사	월-금 09:00- 17:00

사회봉사 과목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이 과목이 순수 자발성에 근거한 선택과 목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에서 보듯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표 9> 1998 - 2000학년도 '사회봉사' 과목 개설 현황

년도	학기2학기	분반 현황	분반 수	총인원
1998	1학기	주간 (6)	6	106
	2학기	주간 (6)	6	90
1999	1학기	주간 (6)	6	133
	2학기	주간 (6)	6	139
2000	1학기	주간 (6)	6	182
	2학기	주간 (6)	6	180

2000학년도의 경우, 매 학기 평균 180명 정도의 학생들이 사회 봉사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그들이 20 - 30여 개의 복지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소중한 경험을 쌓고 있음은 매우 희망적이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각박한 세태에 견주어 보면, 이들 젊은 학생들의 고운 심성과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들의 노고는 고무적으로 보인다.

<표 10> 2000학년도 ‘사회봉사’ 현장 실습 내용

1학기

구분	과목 명	인원	총인원	기관 수	구분	과목 명	인원	총인원	기관 수
주간	장애인복지	54	182	20	주간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30	180	33
주간	노인복지	5			주간	아동복지	30		
주간	여성복지	12			주간	병원복지	30		
주간	아동복지	39			주간	환경운동	30		
주간	병원복지	42			주간	시민운동	30		
주간	환경운동	30			주간	인권운동	30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먼저, 사회봉사 과목이 인교원에서만 시행되는 과목이 아니라

는 점을 들 수 있다. 인교원·교목실·사회학과에서 저마다 사회봉사 과목을 따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봉사 과목의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재 인교원의 전담교수 5명의 전적인 책임 하에 전교생을 상대하여 ‘인간학’ 강의, ‘그리스도교개론’ 강의, ‘종교교양’ 과목들의 강의 그리고 사회봉사 과목들의 운영과 현장 체험 지도 등을 맡고 있다. 이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아무리 초인적인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투신한다 하더라도, 당장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과중하게 보인다. 이상과 의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에 걸맞은 학교 당국의 현실적 대책 내지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⁹⁾

III. 전망: 다종교 사회 속에서 가톨릭대학교의 종교교양교육

종교교양교육의 목적은 결국 개인 인성의 실현을 통하여 ‘남’¹⁰⁾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교육 이념인 “널리 세상[人間]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과도 잘 조응하는 내용이다.¹¹⁾ 현재 세계종교인평화회의(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WCRP) 의장을 맡고 있는 스위스 출신의 저명한 가톨릭 신학자이자 종교학자인 한스 쿡은 최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세계윤리 구상’(Projekt Weltethos, Global Ethic/Responsibility)¹²⁾을 내세우면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내걸고 있다. 즉 “종교간 대화 없이 종교간 평화 없고, 종교간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없다!”는 것이다.¹³⁾ 그러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종교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없

9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일본 상지대의 경우 인간학연구실 소속의 전임 교수가 천주교 신부 10명, 일반 남자 교수 3명 그리고 여자 교수 2명으로, 총 15명으로 되어 있다. 나카무라 토모타로(中村友太郎), 「上智大學의 人間學 - 人間學研究室的 입장에서」, 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 『한·일 인성교육 심포지움 자료집』, 서강대학교, 2000년 11월 3일, 4쪽 참조.

10 여기서 말하는 ‘남’은 단순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할 뿐 아니라, 극대화한 개념으로서, 우주 전체(로서)의 생명체를 말한다. 물리학자 장회익은 이러한 생명체 전체를 ‘온생명’이라고 표현한다. 장회익, 『삶과 온생명 - 새 과학문화의 모색』, (서울: 솔, 1998) 참조.

11 이계학, 「교육의 본질과 삶」, 《한국의 교육과 윤리》 3,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쪽 참조.

12 한스 쿡, 『세계윤리구상』, 안명옥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2), 147-205쪽: “종교 평화 없이 세계평화 없다”, 209-261쪽: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다” 참조.

13 Hans Küng, "My long way to a Global Ethic". 한스 쿡 박사 초청 간담회 자료(미간행 유

이 다양한 종교간의 진정한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기본 구상을 염두에 두면서, 특히 세계종교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한국의 다종교 상황이라는 맥락 안에서, 가톨릭대학교가 좀더 나은 종교교양교육을 실현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구체적인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인간학교육원’의 개칭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인간학교육원’이라는 명칭을 ‘(가톨릭)인성교육원’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의 ‘인간학교육원’은 실제적으로는 가톨릭의 인간존중 정신[그리스도교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여 포괄적인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간학교육원’이라는 명칭은 혼선이 빚어질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그러한 명칭은 가톨릭대학교를 위한 그리스도교적 인성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일본 상지대학의 경우를 본받으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인간학’이라고 할 때, 특별한 전제를 달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서양)철학의 일개 특수 분야인 ‘철학적 인간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성교육’이라고 말하는 교육내용을 ‘인간학(교육)’이라고 한다.¹⁵⁾ 차제에 ‘인간학연구소’의 명칭도 ‘(가톨릭)인성연구소’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둘째로, “다종교 사회의 표본” 혹은 “종교백화점”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맥락에서 ‘이웃종교들’(Neighbour Religions)에 대한 이해가 인성[sic 인간학]교육 과정에 보완되어야 하겠다. 현행 커리큘럼의 틀 안에서라면 3 - 4학년 동안에 수강하는 ‘종교교양’ 과목들 중에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이웃종교들에 대한 열린 이해를 추구하는 과목들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와 동양종교’, ‘그리스도교와 샤머니즘’, ‘그리스도교와 신흥종교’라든지, ‘종교와 인권’, ‘종교와 평화’ 등의 과목이 추가되어 들어가야 한다.¹⁶⁾ 아울러서 현재 천주교 성직자와 수도자에 국한된 ‘종교교양’ 과목 담당 교수진

인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2000년 9월 22일; Hans Küng, "World Religions - World Peace - World Ethic. A realistic Vision for the 21st Century", 한스 쿡 박사 초청 강연회 자료(미간행 유인물), 서울: YWCA회관 대강당, 2000년 9월 22일 참조.

14 한스 쿡, 위의 책, 209 - 215쪽.

15 나카무라 토모타로(中村友太郎), 「上智大學의 人間學 - 人間學研究室의 입장에서」, 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 『한·일 인성교육 심포지움 자료집』, 서강대학교, 2000년 11월 3일, 1쪽 참조.

16 김녕, 「새천년 복음화를 지향하는 공동체적 인성교육의 모색: 인권·정의·평화·관용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편, 『교육과 복음의 만남』, 2000년 대회년 가톨릭교육자대회 자료집, 서강대학교, 2000년 5월 21일, 241 - 252쪽 참조.

[교원]을 사계의 전문가들에게 폭넓게 개방할 필요도 제기된다. 현재 극심한 교수진의 부족을 해소한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다극화되고 있는 새로운 천년기(Millennium)의 사회 속에서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paradigme-shift)을 목도하고 있다. 미증유의 시대 변화 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종합대학교 차원의 종교교육, 영성 교육 분야 역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할 것이다.¹⁷⁾

셋째로, ‘(종교)인성학부’ 내지 ‘종교문화학부’(가칭)의 신설이다. 교수진은 우선 ‘인교원’과 ‘종교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다. 그리고 학교 당국의 판단에 따라 철학과라든가 그 외 학부/전공의 교수들을 재배치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규로 교원을 충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설 ‘종교인성학부/종교문화학부’(가칭) 내에는 3개 정도의 전공 분야를 둔다: 예를 들면 인간학(혹은 인성학)·가톨릭교육·(비교)종교학 전공 등이다. 이러한 안이 실현된다면, 전공 학생의 안정적 확보로 그리스도교 교양교육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개별 전공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교육에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학(또는 인성학) 전공’에서는 1학년의 ‘인간학’ 교육과정을 책임 담당하고, ‘가톨릭교육 전공’에서는 2학년 ‘그리스도교개론’을 책임지고 운영하며, ‘(비교)종교학전공’에서는 3 - 4학년 ‘종교교양’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재학생들은 이 신설 학부[(종교)인성학부 혹은 종교문화학부]의 한 분야를 선택하여 전공하거나, 타 학문 분야를 전공하면서 (종교)인성학/종교문화학(가칭) 분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학문 후속세대와 전문 교원의 자체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종교)인성학과]이나, 특수대학원[종교인성학대학원]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적 연속성을 실현한다.

넷째로, 이러한 ‘종교인성학부’ 또는 ‘종교문화학부’의 신설과 연계하여 ‘평생교육과정/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Catholic Community-College]의 개설도 고려해볼직하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개설 강좌의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고려될 수 있겠다: ‘성서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 인생론’,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이해 - 고통론’, ‘가족 붕괴 시대에 다시 생각해보는 그리스도인의 가족 - 가족학’, ‘인간에 대해 생각함 - 그리스도교 인간학’, ‘나누고 섬기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 가톨릭의 사회적 가

17 비근한 예로 일본 상지대학의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인간학연구실 소속 교수 중에 일반 남녀 교수가 5명이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나카무라 토모타로(中村友太郎), 「上智大學의 人間學 - 人間學研究室的 입장에서」, 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 『한·일 인성교육 심포지움 자료집』, 서강대학교, 2000년 11월 3일, 4쪽 참조.

르침, ‘삶과 죽음 - 사생학(死生學 Tanathology)’, ‘사랑의 참된 의미 - 사랑학’, ‘일상 생활 속의 예절’, ‘세계화 시대의 시민으로 살기 - 지구윤리’, ‘인간과 종교’ 등.

다섯째로, ‘사회봉사’ 분야는 유관 학부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력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 현재 ‘사회봉사’ 분야는 ‘인교원’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목실과 사회학과에서도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담당 주체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움과 동시에, 학생들과 사회봉사 대상 기관에도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가톨릭의 인간존중이라는 동일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에 대학 내의 구성원들과 단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교육효과의 파급에도 훨씬 나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생활상담소’와 ‘인성교육원’(가칭)이 연계하여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배려에 힘을 쓰는 일에도 착안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사회봉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도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들의 시민활동에 ‘인성교육원’이 일정한 역할을 맡아 하는 동시에,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그들이 시민사회의 지도자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끔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 가톨릭계 교육기관들과의 전국적 연대이다. 가톨릭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일사불란한 조직과 협력에 있다. 가톨릭계 교육기관들 간의 조직적 연대가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우선 국내 가톨릭계 종합대학교로는 가톨릭대학교 외에 서강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있다. 부산가톨릭대학교도 최근 지산대학과 통합하여 종합대학교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4년 제 가톨릭(신학)대학들이 종합대학에 버금가는 교육의 장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안동의 가톨릭상지대학은 명문 전문대학으로 그 전국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의 가톨릭계 고등교육기관들이 그리스도교 휴머니즘에 입각한 ‘(그리스도교) 인성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동개발하고, 현장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연대하여 실시하며, 공동 관심사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여 교육 현장에 도입하고, 교수와 학생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한국 대학교육의 새로운 차원을 펼쳐 보일 수 있겠다.¹⁸⁾

그렇지만 대학들끼리의 교류만으로는 인성교육에 한계가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였다. 인성교육이야말로 빨리 시작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다. 전국 곳곳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등과 가톨릭적 인성교육을 위한 연대 사업도 이루어져야 한다.¹⁹⁾

18 류장선, 「서강대 인성교육의 발전방안」, 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 『한·일인성교육 심포지움 자료집』, 서강대학교, 2000년 11월 3일, 16-24쪽 참조.

기존의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나 주교회의 ‘교육위원회’가 이러한 일에 나설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을 전담하여 조율하는 전국 기구로서 ‘한국가톨릭인성교육협의회’(가칭)의 창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서 학술적 연구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미나와 심포지엄의 개최, 학술지 및 총서의 발간 등을 주 사업 내용으로 하는 ‘한국가톨릭인간학회’(가칭)의 설립도 고려해 볼만하다.

일곱째로, 국제적인 연대이다. 세계가 점점 좁아져 가는 이 시대에 와서 국제적 교류는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지금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매년 가톨릭대학교 인교원의 책임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일본 상지대학교와의 교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상지대학이 새로 출간한 인간학 교과서 『현대인간학(現代人間學)』(상지대, 1999)은 가톨릭대학교가 수 년 전부터 구상하고 있는 인간학의 새로운 교재 집필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가톨릭대학교 인성교육 담당자들이, 상지대학이 주축이 되어 일본의 인간학계를 이끌고 있는, ‘상지인간학회’(上智人間學會) 등의 해외 학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학술 교류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한국가톨릭인간학회’(가칭)가 창립된다면, 국내외 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도 가능 하겠다. 상지대학교와의 교류에만 단선적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일본 나고야의 남산대(南山大), 대만 보인대(輔仁大), 그 외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권 가톨릭계 대학들, 또는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주와 유럽의 가톨릭계 대학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가톨릭대학교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Catholic Universities IFCU) 등의 국제 기구를 통한 ‘가톨릭 인성교육’의 세계적 교류와 연대도 모색할 단계에 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양교육의 본질, 현황 그리고 전망을 한 마디로

19 한국천주교회가 운영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기관 수	211	6	28	38	3	9
교원 수	1,385	138	854	2,091	116	1,314
학생 수	24,419	4,546	23,023	45,415	5,849	23,004

출전(재구성):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편, 『한국의 가톨릭 학교교육』, 1999, 281-286쪽: “<부록4> 한국천주교회 통계(학교교육), 1998”; 인터넷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cbck.or.kr/> 주교회의/ 문헌자료실/ 한국천주교회 통계(1999년 12월 31일 현재) 자료.

요약하자면, 가톨릭대학교의 교육이념이 말하는 바대로,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진리·사랑·봉사”의 실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여준 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의 기본 품성[인성]을 가꾸고 키우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인성교육은 원래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익히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돈 버는 능력과 출세만이 앞세워져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그 결과 인간 됴됨이는 뒷전으로 물러나, 개인은 비인간화되고 그들이 모인 사회에는 인정이 메마르게 되고 만다. 이제 대학에서라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여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의 종교교양 교육과정에서 충실한 인성교육을 받은 다음 사회에 진출한다면 밝고 맑은 세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들이 훗날 가정을 꾸리게 될 때, 그 가정에서는 또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가정교육으로 참다운 인성을 2세에게 전수하게 된다. 그 때 우리 사회는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²⁰⁾ 아름다운 세상, 인간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20 구약성서 『시편』 85편 10절.